

【일본 제일의 최저남 ※나의 가족은 가짜였다 제02화】

<https://cafe.daum.net/jpcokr/KpLx/6141>



02:46 俺のこと褒めてた? / あ… はい。 / 間が。間がすごい。

>> 내 칭찬했어요? / 아… 네 / 텀이 텀이 너무 긴데

ま [間] 사이

a. (공간적인) 간격.

b. (시간적인) 동안; 겨를; 짬.

메모: 일반적으로 있어야 할 (시간적) 간격 보다 (대답이) 길어 질 경우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4:21 **ひとまず**二階堂さんに**食い込め**。

>> 우선 니카이도씨에게 파고들어

ひとまず [一先ず] 1. 우선 2. 일단 3. 하여튼

참고: 라이온의 은신처 제09화

12:20 **ライオンは 今 ママと一緒にいるから** **ひとまずは**

>> 라이온은 지금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우선은



くいこむ [食(い)込む]

1. 파고들다; 죄어들다; 깊숙이 안으로 들어가다.
2. (다른 영역으로) 침범하다; 침입하다.
3. 원금이 줄어들다; 적자가 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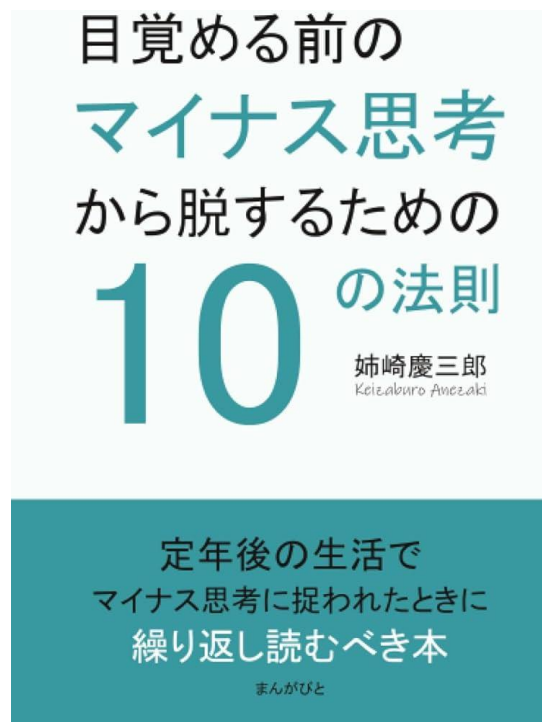




04:28 よーし 崖っぷちから脱してやる。

>> 좋았어 벼랑 끝에서 벗어나 주지

だっする [脱する] 1. 벗어나다 2. 탈출하다 3. 이탈하다



【재팬매니아 일본어 온라인 강의】  
일본 제일의 최저남 ※나의 가족은 가짜였다 제02화



04:46 二階堂さんは一度 懐に入ってしまうと 優しいけど 外の人間に対しては とにかく手厳しい  
からな。

>> 니카이도씨는 한 번 마음에 들면 잘해 주지만 가깝지 않은 사람에겐 아무튼간에 정말 까다로  
워



15:40 これで 慎太郎さんの懐に入ることができる。

>> 이렇게 해서 신타로씨를 내편으로 만드는 거지

ふところ [懐] 1. 품 2. 무엇에 둘러싸인 곳 3. 호주머니

懐に入る

相手の好感を得て関係を持ち、自分に有利にすること

메모: ふところ [懐]는 懐に入る 외에도 여러 숙어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懐が暖かい (호주머니 사정이 좋다; 가진 돈이 넉넉하다), 懐が寂しい (돈이나 재산이 적다[없다].), 懐が深い (도량이 넓다; 포용력이 있다.) 등이 있습니다.

# 手強い相手の 懐に入る技術

内田雅章 著



てきびしい [手厳しい] 매우 엄하다[호되다].

메모: 일반적으로 아시는 형용사에 手~가 붙은 새로운 형용사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手怖い (뼈아프다 쓰라리다), 手強い (다루기 어렵다, 강적이다), 手厚い (극진하다, 정중하다), 手広い (폭넓다 다방면에 걸쳐 있다), 手堅い (확실하다, 견실하다) 등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원래 형용사가 일반적이고 폭넓은 의미를 지니는 반면, 手~가 붙은 형용사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원래 형용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팬매니아 일본어 온라인 강의】

일본 제일의 최저남 ※나의 가족은 가짜였다 제02화



06:22 **ガーン。** / **ガーン**

>> 허걱 / 허걱



44:05 **ガーン!** / **ガーン!**

>> 허걱 / 허걱

があん

1 物を強く打った音などが、大きく響くさま。また、その音を表す語。「一斗缶を一と蹴る」「頭を一と殴られた」

2 精神的に打撃・衝撃を受けるさま。「抽選の落選結果に一と落ち込む」

[補説] 2は俗に、感動詞的にも用いられる。「一、スマホの画面が割れた」





(다시 나온 표현이니 복습해 주세요^^)

06:34 ういっす。 / ボナセーラ。

>> 안녕 / 보나세라

메모: ういっす는 속어 표현으로 안녕(하세요), 네 등으로 사용되지만 윗사람에게 쓰면 예의 없는 표현이 됩니다.

ボナセーラ (buona sera) 이탈리아語で「こんばんは」という意味

참고: 일본 제일의 최저남 ※나의 가족은 가짜였다 제01화

21:47 ボナセーラ。

>> 보나세라

